제313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2월12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北 3차 핵실험 관련 보고
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北 3차 핵실험 관련 보고 ····· 1
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 20
1. 北 3차 핵실험 관련 보고(계속) ····· 23

(16시03분 개의)

○委員長 劉承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히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경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번 3차 핵실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또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북한 제3차 핵실험 관련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그동안 핵실험이 예고돼 왔던 만큼 양당 간사님들께서 진작 협의를 하셔서 핵실험 직후에 회의를 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국방부장관께서는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 갔다 오시고 또 주한미대사도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특히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등 이번 3차 핵실험이 과거와 양상이 많이 다르고 훨씬 더 엄중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北 3차 핵실험 관련 보고

(16시05분)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북 3차 핵실험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핵실험 중지 촉구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시 57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방부는 즉각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시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 정보감시태세를 바탕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일 긴급 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임관빈 정책실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북한 3차 핵실험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일 북한은 함북 길주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우리는 11시 57분경 기상청 및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인공 지진파를 탐지하였습니다.

금번 핵실험은 리히터 규모 4.9로 추정되며,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3차 핵실험을 성공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의도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탈피를 모색하고, 과거보다 강도 높은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미·북 관계 개선 및 북핵 문제 토의의 틀을 전환하며 또한 우리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국방부 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장관 주관으로 소집하였고, 경계태세 격상 및 추가 도발 대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5시에는 장관과 주한미대사 및 연합사령관 간에 한미 공조 논의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지속해서 한미 공조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간에 북의 추가 도발 징후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경계태세 격상 및 추가 도발 대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당국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의 확충을 가속화하고, 대북 경고성 성명 및 한미 연합전력 무력 시위 등을 필요시 선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합참에서도 조보근 북한정보부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참석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오늘 정말로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실험에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우리 국방위가 긴급 소집된 의미는 서로 다 알리라고 봅니다.

우선 먼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선군정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자는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희망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선군정치하에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은 앞으로도 무력화하고 지속적으로 무장화할 때 그 사람들이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장관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 북한이 핵무장을 했을 때도 우리는 비핵화를 유지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한민국 비핵화는 현재까지 국제사회와 한 약속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무장화 이것에 보다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미 공조하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가동 중인 핵확장억제위원회 EDPC 체제하에서 북한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공개적인 입장에서 장관님께서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면 북한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한반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은 과거에는 '핵우산 제공' 이런 식의 개념적 표현이었습니다마는 맞춤형 억제 전략은 한반도 지형조건하에서 북한이 핵을 어떻게 사용하

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임박 시에 무엇을 하고, 발사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비군사적 대안, 군사적 대안, 미 측 전력, 한 측 전력,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이런 과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장관님, 한미 핵우산 협력도 좋고 맞춤식 전략도 좋은데 당장 우리 한국군이 갖추어야 될 대응수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방비도 많이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당연히 우리는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800㎞까지 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승인을 받았고 또 여기에 따른 일부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바 있고, 특히 이것을 탐지하고 식별해서 결심·타격에 이르는 일련의 원활한 조치,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장관님 하시는 말씀 가지고는 국방위원인 저도 안심되지 않고 국민들도 그것이 속 시원한 대응체계라고 이해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추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장관께서 정말로 이것이것만은 당장 갖추어야만이 북한 핵무장화 한 데 대해서 대응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밝힐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기전력화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별도로 제출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님께서 정식으로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제안해 주신다면 국방위에서 그것을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장관께서 정부와 또 한미 간에, 또 중국 간에 잘 협력하셔 가지고 근원적인 해결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거듭된 노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책임은, 이후의 상황 되는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장관, 이번 3차 핵실험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꾸준히 핵무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정은은 3대에 걸친 위업으로 생각을 하고 핵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3차 핵실험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체제의 문제,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국제 안보적 또는 외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입지의 강화 등등을 고려해서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규백 위원 북한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이 금일 11시 57분 50초로 감지되는데 2006년도 최초 탐지에 약 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1분이 소요되었는데, 북한이 정확히 핵실험한 시간을 오늘 몇 시로 보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11시 57분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11시 57분에 인공지진파를 감지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핵실험 장소가 풍계리 서쪽 갱도입니까, 아니면 남쪽 갱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는 서쪽 갱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한미연합 자산을 이용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은 지진의 근원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제2번 갱도, 서쪽 갱도로 판단을 합니다.

○안규백 위원 북한이 지난 2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핵실험 할 거라고 통보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통보를 언제쯤 알고 있었고 어느 쪽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제 저녁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사전통보를 했고 미국

은 바로 우리한테 알려서 제가 엊저녁 10시쯤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는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북한 핵실험을 어제부터 할 거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정황 증거나 핵실험의 강행의지를 언제쯤 할 거라는 것을 판단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실험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대략 우리는, 항상 핵실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엊저녁 통보 이후에 우리는 대비 수준을 높였고 오늘 아침에 한국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긴급회동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핵실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공지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지질연구원의 진도가 당초에 5.0으로 보도됐습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후에 국방부에서 4.9로 발표했고 일본은 5.2, 미국은 4.9로 탐지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뭐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질연구소에서 최종 확인한 것은 4.9로 추정된다고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왜 국방부에서 5.1로 당초에 최초에 발표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최초에 추진하는 방식이 MB 방식과 ML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ML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5.0으로 이렇게 최초 발표를 했다가 지질자원연구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9가 맞다—물론 이 수치도 추정입니다—4.9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도 발표를 5.0에서 4.9로 수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무기 위력도 6~7kt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4.9하고 5.1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폭탄에 대해서 상당히 엄청난 양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최초 파장을 측정하느냐, 최초 파장 이후의 진동을 놓고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약간 가변이 있다고 전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오늘 김민석 대변인의 말씀에 의하면 10kt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폭발이다, 다시 말해서 10kt 이상이 되어야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핵실험이 6~7kt으로 증폭핵분열탄에 미치지 못하다, 이것은 정상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지요? 이게 만일 아니라면 핵을……

○국방부장관 김관진 4.9 진동으로 6~7kt의 위력,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가늠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3차 핵실험이 북한이 의도한 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아직까지 평가를 못 합니다.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면 당초 5.1에서 4.9로 평가절하하고 낮게 보는 것은 핵실험 성공을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그렇지 않고 현재로 봐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1차 핵실험 시 플루토늄 2kg과 2차 핵실험 시 5kg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에서 고농축우라늄이냐, 플루토늄이냐, 이 정도를 몇 kg 정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도 공기 중에 추출될 수 있는 방사능량 이것을 포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것이 플루토늄인지 고농축우라늄인지 평가가 가능하고 이 질량이 얼마인지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소형화·경량화 문제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런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북한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북한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국방부에서도, 지난번에 합참에서 보고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동시 핵실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풍계리 동향은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까지 한 군데에서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나라 예를 볼 것 같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금일 13시에 NSC 회의에 참석하고 오셨잖아요? 추가적인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핵실험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금일 오시기 전에 미국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안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발표한 게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안 믿으신다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우리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별도의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데가, 이것을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미 간에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서 아마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런 기관이 한미 연합으로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미 연합은 아니고 미 측의 전문기관과 우리의 지질자원연구소나 이런 데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게 언제쯤 평가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委員長 劉承旼 금명간 평가는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최단 시간에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잘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국내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5.2, 4.9, 5.1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적으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국가의 공식 발표인지 기관의 발표인지 이것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놓고서 아마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초안을 좀 돌려 주시기 바라고, 두 분 간사님께서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 끝나셨기 때문에 이 초안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좀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오늘 북한의 3차 핵실험, 대단히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마침 오늘 이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결의안에는 반드시 핵실험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전력을 우리가 새롭게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서 긴급예산으로 반영을 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전력 예산 그것은 두 분 간사님께서 이 규탄 결의안을 협의를 하실 때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다만 이것은 대북 규탄 결의안이기 때문에 규탄 결의안에 그 긴급전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긴급전력 예산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전하는 것이 맞는지 부분까지도 두 분 간사님께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장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믿음이 갑니다.

한 가지 조금 의심 사항이 국방부의 공식 발표

를 보면 '아주 정상적인 폭발은 아니다' 하고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주 정상적인 폭발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게 정상적인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평가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영근 위원 아니,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폭발이 아니다'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폭발이…… 기술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어떤 기대했던 위력에 못 미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공식 입장에 대해서 그것이 공식적인 발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인지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 단계로 보아서 이것이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위원 이게 대변인 발표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뒤를 돌아보며)

대변인이 발표했나?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1차 그 사실 자체만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팩트 자체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영근 위원 그러면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추가적으로 오늘 떠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할 테니까 그것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오늘 북한의 이 발표를 보면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했는데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발표는 봤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라늄탄이 개발이 되어서 소형화되어서 스커드나 혹은 대륙간 탄도탄에 탑재가 되는 이 상황이 우리로서는 아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장관께서는 이것이 북한이 앞으로 탄두가 최소한도 ICBM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스커드 B·C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소 어느 정도까지, 가장 빠른 시간이면 언제냐……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른 나라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빠르면 2년, 4~5년 이렇게 걸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북한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4~5년 보는 것은 파키스탄의 예나 다른 이스라엘 이런 예를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소형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심각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적·군사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기술적 수준으로 현재 이것을 이루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빗나가서 한 1년쯤 있다가 내년 이맘때쯤 되어 가지고 '우리 핵탄두 여기다 탑재했는데 그다음에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완전히 나라의 국운이 걸리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핵시설을 사전에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여기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충을 가속화하겠다 그 말은 적어 놓았는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 사거리 연장 미사일 개발의 가속화와 정밀공격무기 전력화 확충 여기까지는 개념은 나오는데 언제까지냐 하는 것이 명시가 안 되니까 과연 북한의 소형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그것 궁금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로 봐서도 한미 연합전력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갖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빨리 투자를 해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아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예산들 2013~2017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내용의 상당 부분은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여기에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국방부장관 김관진 내용은 저희는 필요한 전력을 다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것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어떤 것은 소요제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할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연합방위전력으로 우리가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긴급 소요를 잘 빨리 산출하셔 가지고 좀 반영을 하기를 기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 이 핵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것은 꼭 좀 차기 정부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 핵 문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국가적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국제적 공조를 하고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산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엊저녁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미국하고 중국에 통지를 했다는데요, 1·2차 핵실험 때도 미국에 통지를 했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미국에 통지하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게 진도 4.9리히터에 파괴력이 6~7kt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데, 이게 지하 몇 미터에서 했는가 그런 문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좀 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하 얼마에서 했는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석현 위원 이번에는 복수실험이나 동시다발은 아니고 2번 갱도, 그러니까 서쪽 갱도에서 한 군데에서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 번 파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서쪽 갱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3번 갱도는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과거에 98년도엔가 인도가 핵실험했을 때 그때 얼마 간격으로 했나 하면 이틀 간격으로 5번 지하 핵실험을 했다고 그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이틀 간격으로 6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적에 추가적인 핵실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현재 어떤 정보나 그러한 정황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현재 그런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현 위원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석현 위원 3번 갱도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서 다종화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종화라면 과거에 플루토늄 실험만 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러니까 고농축우라늄 실험을 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도 그게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한 것인지 탐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현재로 봐서는……

○이석현 위원 그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탐지할 수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국이 가지고 있는 WC-135라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항공기인데 만일 기류상 누출된 방사능이 포집이 가능하다면 바로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무인정찰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 무인정찰기가 아니고 그냥 정찰기.

○이석현 위원 그냥 정찰기가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 봐야 안다는 말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단계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현재 정찰기를 운용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북쪽이 주장하는 또 한 가지가 소형·경량화 성공했다, 소형화를 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았듯이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하려면 무게가 몇 t 이하로 되어야만 그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잠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

○국방부장관 김관진 1t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석현 위원 1t 미만으로 소형화할 수 있으면 무기 사용을, 탑재가 가능할 것이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석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 중량에 있어서, 위력이 아니라 중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핵실험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정보가 없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현재는 핵실험을 했다 이 사실만 저희가 알고 있고 위력이 얼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형화인지 경량화인지 이것은 아마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석현 위원 북한이 핵실험한 것 외에 육해공군에 있어서 지금 특별한 동향은 보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적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석현 위원 미국과 우리 사이에 핵실험 전후해서 지금 얼마나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 핵실험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발사 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공조회의를 했고, 발사 후에도 마찬가지 현재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왔습니다.

○이석현 위원 특별한 말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북한의 유엔 결의안에 대한 위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도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했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박 검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PSI는 국제적인 공조를 하기 위한 약속이고 이상한 물질로 추정되는 것을 선박에 실을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검색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고 그 훈련을 매년 합니다.

○이석현 위원 해상을 봉쇄하는 의미는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해상 봉쇄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핵실험 성공 후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로 제작되어 실전에 배치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먼저 소형화, 경량화를 이루었는지 이걸 평가를 하고, 이루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여기에서 1년, 2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으로부터 전반적인 미사일 제작능력까지 다 평가한 다음에 산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따지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인춘 위원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주목하고 있지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정확한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손인춘 위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완료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투자되면 중기 기간 내에 다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손인춘 위원 북한이 핵무기를 서로 실전 배치하기 전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선제타격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정보력과 무기체계가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 100% 선제타격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현재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탐지해서 타격하는 데까지 한미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춘 위원 선제타격이 정확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미 연합전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더 가용한 자산과 전력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인춘 위원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한미 공조를 할 때 더 정확하게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손인춘 위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사실 만들어진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력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 획득과 통제가 지금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수치적으로 100% 완벽하다,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대한 감시자산을 동원하면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은 감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모든 문제가 사실 예산 부족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더라면 전력화 기간이 빨라졌을 것입니다.

○손인춘 위원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도 이 부분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이번 3차 핵실험은 6~7kt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을 경우 1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고, 그다음에 16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걸로 예측됩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무기를 도시지역에 투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인춘 위원 그런데 말씀은 하시지만 억제방

법, 어떤 방안 이런 것을 우리한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실 것은 없으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한미 간에 계속적인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인춘 위원 사실 이번 3차 핵실험은 이전의 1, 2차 핵실험보다 지금 우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미치고 있다고 전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책, 사실 이것은 계속 얘기는 되지만 이런 대비책을 더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군사사항에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계가 있음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저희는 국가 안보에 큰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이번에 발생했다라는 인식을 하고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핵심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우리가 북한을 대비할 수 있는 선제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선제공격이나 공격하기 위한 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현재 감시하고 이걸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내면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전력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한 예산만 주시면 단기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인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자꾸 논의가 헛도는 것 같아서…… 지금 자꾸 '국회에서 주시면' '주시면' 이러시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나와 계시는데요, 정부에서 이 국방예산을 포함해서 추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직까지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국방부장관님께서 기재부장관하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들 보고 이 자리에서 그냥 '주시면' '주시면' 이래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절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3차 핵실험 규모가 리히터 규모로 4.9 정도가 된다고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전번에 2차 실험 때는 4.4였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4.5로……

○김형태 위원 아, 4.5요. 그러면 0.4가 규모가 크다는 얘기인데, 0.2가 크면 그 규모는 2배로 폭발력이 커진다는 말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난 2차 핵실험 때 4.5 규모가 약 3kt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번에 4.9로 봤을 적에 6~7kt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큰 위력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김형태 위원 한 7kt 정도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6~7kt……

○김형태 위원 6~7kt…… 나가사키가 13kt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10kt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정승조 합참의장이 지난번에 바로 장관께서 앉은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당연히 핵무기라는 것은 절대무기이고 핵무기를 투발했을 경우의 피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파괴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거기에는 견해가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 당시에 정승조 합참의장은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농후할 때'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미 핵무기 생산이 기정사실화되고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꼭 선제공격할 징후가 있을 때만 공격을 해야 할 것인가, 선제타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는 선제공격, 선제타격을 할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무기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든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위기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은 전시 핵무기 사용, 이렇게 저희는 가정을 합니다. 평시에 가만있다가 불쑥 핵무기를 쏜다,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징후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의 발언은 우리에게 선제공격할 가능성, 징후가 있을 경우라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를테면 미국을 상대로 공격할 징후인지, 일본을 상대로 공격할 징후인지, 우리를 상대로 공격할 징후인지가 쉽게 식별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상정을 한다면 지난번에 시험발사했던 장거리미사일, 이걸 발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에 징후 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형태 위원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핵을 무기로 활용을 하려면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하지요?

이번에 북한은 오늘 공식발표에서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북한의 발표를 가지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과 공조를 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판단을,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아직은 정확히……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만약에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별도의 핵실험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기폭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폭실험은 이제까지 북한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을 더 할지, 아닐지 이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은 핵탄두의 소형화를 위해서 이들이 곧 또 한두 차례의 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른 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핵실험은 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형태 위원 지난번 작년 12월 12일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추가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중대한 조치, 시그니피컨트 액션(significant action)이라고 그랬습니까? 중대한 조치, 의미 있는 조치라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그니피컨트 액션(significant action),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장관께서는 지금 '미 당국자와 만나서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들의 핵무기 생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타이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아무리 심각한 중대한 조치를 미국과 협조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장관님이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 주시지요. 그래서 북한이 꼼짝 못할 수 있는 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 말씀을 한번 듣고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한마디 해 주시지요. 시그니피컨트 액션(significant action), 의미 있는 중대한 조치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이 그만큼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유엔 안보리가 다시 재소집되어 가지고 대북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역시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사적

문제라기보다는, 한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특히 중국이 공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들이 너무 유화적으로 해 온 결과가 오늘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단호하게 대처해서 북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자기들 국익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본때를 확실하게 좀 보여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중앙통신이 소형화·경량화 된 원자탄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회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대북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수권자께서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인식이 같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무모한 도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특히 한미 간의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것을 아주 강하게 주문을 하시고 또 몸소 시행을 하실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오늘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오늘이라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한이 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쪽 당선인 인수위에 알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야당에도 좀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 국방위 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핵실험할 것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방위 위원들 정도 되면 그런 보안 문제는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사전에 당부에서 이런 것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난번 로켓 발사 때도 사실은 발사하는 날 조간신문에 반대의견이 나왔거든요. 오늘 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 할 때마다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장관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핵실험과 관련된 자료를 내보내면서 북한 TV에 공개된 소위 말하는 갱도의 모습 이것을 캡처해 가지고 내보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사실은 그것이 좀 신기한 정말 진지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보능력이 부재한 것이냐,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보도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도해 주느냐 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관님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외국에서 했던 자료를 근거로, 물론 북한 TV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자단들의 요구가 있어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제시했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4.9냐 5.1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언론에서는 이것 또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대변인 발표를 오늘 또 했는데 이때 명쾌하게 4.9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장관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데 이것으로 통일한다는 것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오늘은 초기에 바로잡은 것은 사실이고요. 4.9로 하면서도 저희가 괄호를 해서 추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이런 것들은 가변적이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위원 하여튼 대변인을 통해서 좀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난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외국의 사례로 봤을 적에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발표는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만들었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는데 사실 플루토늄에 의한 것인지, 고농축우라늄인지, 수소폭탄 시험인지 지금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때 가스를 포집해야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명쾌하게 알 수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스를 직접 포집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무슨 검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주 기술적인 문제로 깊게 들어가면 국방부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북한의 핵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한미 정보 전문기관들이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조금 더 파악을 할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와 연관해서 이것이 플루토늄에 의한 것이냐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원자로가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식별할 수 있는 상당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변 원자로 굴뚝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 뒤로 시설을 복구했다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자로를 해서 그들이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플루토늄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지난번에 국방부, 합참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영변 원자로에서 약 40여kg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8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만들 수 있다……

○백군기 위원 그것으로 추정한다면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을 식별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식별을 위한 뭔가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고농축우라늄이냐,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섞어 가지고 증폭된 개념의 무기냐 하는 것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 분명히 해 드려야지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태울 때 긴급전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비대칭 전력에 대비한 긴급전력으로 이미 태워졌단 말이에요.

장관님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때도 아주 대단히 논란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대로 다 해 드렸는데.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이 전력 자체가 여기에 맞는 전력입니다. 그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전력……

○백군기 위원 비대칭 전력에 대비한 대응전력을 우리가 그때 해 준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때 바로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물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착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한에서는 핵시험이라고 계속하는데 실험과 시험은 용어상 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복 위원 북한은 실험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핵실험이나 시험이나 평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정복 위원 어제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보고는 대통령한테도 했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다 보고가 됐습니다.

○유정복 위원 어느 범위까지 통보를 하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 참모 계통으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정복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준비는 주로 어떤 것을 준비하시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핵실험이 임박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침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복 위원 이게 너무 예민하고 또 보안상의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북한에서는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장관 김관진 좀 더 평가해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유정복 위원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핵실험 이후에 이것을 핵무기화 하기까지 과연 어떤 시간적 소요라든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망도 사실상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상황이 되는 문제가 사실 이것이 안보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이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판단 요소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획득되어 있는가,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있다면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안 하셔도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시스템이나 그런 전략적인 모든 장치가 다 강구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1차 핵실험 때는 핵실험 성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차 때도 완전 성공이라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때도 조금 기간이 지나면 전문기관에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정복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유정복 위원 그다음에 불안한 것은 이것이 핵무기화 되어서 심각한 위협 상황으로 가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의 이 상황이 앞으로 핵무기화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2년이 될 수도 있고 사오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요. 다른 나라의 예라든가 또 지금 리히터 규모 4.9의 위력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과연 어떤 상황인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특수성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정도, 정보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적어도 국방부에서는 보다 정교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께서나 국방부에서 적어도 적절한 정보, 그다음에 미국과의 공조체제하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아주 깊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하나하나 눈으로 다 보고 하는 정보도 있지만 몇 가지를 보고 해석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가정되는 이러한 정보들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복 위원 하여튼 정말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야 되지요. 만에 하나라도 진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정말로 위기적 상황이 오리라고 판단되면 한미연합사 공조하에서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런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고는 선제타격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이, 핵실험 하는 것도 최근에도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그런 것을 다, 선제타격 시점이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과연 선제타격 상황이냐, 이에 관련한 정보체계는 어떻게 갖추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안사항이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해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인 위협도 그렇고 국민 정서적, 국민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정보체계를 갖추고 있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은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2차 대전 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사용할 적에는 전쟁 막바지 단계, 결국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언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과 가정을 해야만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평시에 아무런 징후가 없는데 갑자기 핵무기가 날아온다 이것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후가 있게 되면 워치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치콘 단계를 올리게 되면 어느 지점에 가용자산을 얼마만큼 어떤 시간대에 집중도를 얼마큼 높이느냐 하는 그런 강도를 정해 가지고 저희는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인식하는 것보다는 군대에서는 보다 더 이것을 깊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복 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치밀하고도 정교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월 달에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장관님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 관계 논의하신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유정복 위원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하다면 선제타격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유정복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만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풍계리에 이르지 못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정복 위원 그렇지요? 제가 결론적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탄도미사일은 그렇고 순항미사일은 가능합니다.

○유정복 위원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 안보리 의장국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의장국입니다.

○유정복 위원 이런 상황을 최대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외교부하고도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잘 갖추어 주시기를……

○국방부장관 김관진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정복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유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준비를 되시는 대로 빨리 해 주시면, 준비가 다 되시면 질의를 중단하고 그것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의안 채택 때까지는 가급적 자리를 떠나시지 마시고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오늘 오후 3시에 한미 공조 조치를 위해서 장관과 주한 미 대사, 연합사령관이 함께 회동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핵실험을 평가했다고 하는데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은 유엔 결의안에 대한 위배, 위반사항이고 국제적인 도전과 도발로 저희들이 평가했고,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진성준 위원 핵실험의 규모나 위력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은 없었던 모양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미 측은 공식적으로 규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에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 따르면 당시 강도가 리히터 규모 3.9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 3.9의 폭발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했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400㎏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800㎏……

○국방부장관 김관진 400㎏.

○진성준 위원 400㎏였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2차 핵실험이 리히터 규모로 4.5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3kt으로 당시에 평가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3kt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장관의 지금 답변은 공식적인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성준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당시에 우리 국방부는 4.6kt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핵실험은 800kt으로 판단했어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진성준 위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06년도에 0.8kt……

○진성준 위원 800㎏그램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리히터 규모 3.9일 때 800㎏입니다.

리히터 규모 4.5일 때는 몇 kt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보고받기로는 3kt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상희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10~20kt이다 이렇게 보고한 바 있고, 이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국방부가 4.6kt으로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4~4.5kt이라면 맞지만 3kt이라면 이상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3kt으로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리히터 규모 3.9에서 4.5로 0.6이 올라갔을 적에 지금 폭발위력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0.4……

○진성준 위원 0.6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4.5에서 4.9로 올라갔는데.

○진성준 위원 3.9에서 4.5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0.6 아닙니까? 0.6이 올라갈 때 800㎏에서 3kt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최종발표로 리히터 규모 4.9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6~7kt이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도 지질자원연구소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평가도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발표한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지금 지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리히터 규모 4.0일 때 1kt의 폭발위력이 발생한다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4.5일 때는 5.1kt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질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리히터 규모 4.9일 때, 5.1이 아니라 4.9일 때 6~7kt이라고 하는 국방부의 판단은, 추정은……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판단이 아니고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을 저희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추정치입니다.

○진성준 위원 국방부 판단은 없는 겁니까? 국방부의 추정은 없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계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런 계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질자원연구소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오늘 받은 자료는 지질자원연구소에서 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밖에 또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기상청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자원연구소에서 받은 자료……

○진성준 위원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방부가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는데, 최종적으로 군사적인 판단 또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냐, 무기화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국방부 아닙니까? 그런데 기상청이나 지질자원연구소의 이른바 지진파 탐지 정도를 갖고, 또 그네들의 계산식에 의해서 폭발위력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의 능력이라고, 정보능력이라고 이렇게 인정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정보는 국방부가 직접 감시장비를 가지고 획득하는 정보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는 정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도 다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평가…… 그게 정보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핵실험의 폭발위력도 당시 보도나 그 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4.6kt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장관께서 나오셔서는 3kt으로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니 그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떻게 그런 산출을 하게 된 것인지 또 최종적으로 이번 3차 핵실험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폭발위력을 산정한 것인지를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합참의장이 출석해 가지고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는 2개 종류의 핵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실험과 HEU, 고농축우라늄 핵폭탄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관측된 지진파로부터는 둘 중에 핵실험 하나만 있었던 것입니까, 동시에 실시가 됐던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하나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이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핵종을 포집하기 위한 정찰기가 떴는데 핵종 포집은 언제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기류와 그 기류에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어느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대기 중에 다 흩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핵종을 포집하는 데 실패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항상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도 아니고 누출되어 가지고 풍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핵종을 포집하는 데 실패하면 북한이 우라늄을 무기화했는지 아니면 플루토늄만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이후에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기타의 다른 방법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나온 북한 내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이번에 북한은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하면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의 탄두에도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장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로 봐서는 자기네들의 미사일에 장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경이 작은 탄두에 장착할수록 기술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나가는 미사일에 탑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합니다.

○진성준 위원 장사정포에는 불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불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성준 위원 여러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북한이 1차, 2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미국이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핵실험 도발을 막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회담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왜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핵화를 북한이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핵실험이 세 번이나 이루어졌고 또 1차, 2차, 3차까지도 다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현실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하는 것과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하면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먼저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위원님들, 정희수 위원님 질의 끝나면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때까지 규탄 결의안을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카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희수 위원님 질의 끝나면 바로 상정할 겁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장관님, 이게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한 7년간 지금까지 오면서 국민들의 많은 신뢰가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 늑대소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진솔하게 우리 국방부가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줄 단계가 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남북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거 했었을 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 앞으로 서로 간에 어떠한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않

고 그게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께서도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북한과 군사적 대결관계에 있습니다. 또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비핵화를 구현하고,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따름입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엔 쪽이든 한미든 중국이든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차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이나 인도 보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형화 성공하려면, 어때요? 한 몇 번 정도는 해야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 성공하는 횟수라고 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정확한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처럼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해야 된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라의 기술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투여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급히, 가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정승조 합참의장이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희수 위원 참……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도 그냥 말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고, 지난 93년도에 북한이 NPT 탈퇴할 때 예방타격도 검토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희수 위원 그런데 예방타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명 피해와 군사비와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방타격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그 시설에 대한 타격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희수 위원 현재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희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핵 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선제타격을 하겠다' 한다는 것은 이미 핵시설이나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북쪽의?

○국방부장관 김관진 고정된 시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최대 규모의 우라늄광을 북한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하려면 정확하고 빈틈없이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것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인 어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군사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가장 실행 가능한 것이 아까 해상봉쇄라든가 금융제재가 가능한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방법이거든요, 북한을 압박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해상봉쇄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이제 국제적 제재와 바로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적 제재가 발표되거나 이루어지면 동참할 것입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국제적 제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동참을……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로 봐서는 해상봉쇄 계획은 없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전력을 강화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쪽에서, 미국이 도와주면 우리가 너무 의존이 심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실적으로 한미 연합전력을 이용해야만이 국제적 공조체제가 생기고, 북한 핵을 억제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

는 대로 제거하기 위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우리 자체 능력도 계속 부단히 발전시켜 가지고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있으면 회의 한 번 하고, 말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축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치는 거고, 또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말로만 이렇게 면피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이 고착화된다면 결국 늑대소년처럼…… 이렇게 아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국론이, 국력이 모아져야 되는데 모아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당선인의 생각에 좀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가도 힘든 건데,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좀 저렇고……

물론 관계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여기 계시고 여기에 모든 지휘관들 앉아 계시지만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한 절박한 의지력이라든가 그것이 좀 엿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게 축적되어서 긴장감이 더 높아져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나 두 번째나 지금이나 별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각별하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17시33분)

○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가 북한의 금번 핵실험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이 사전에 협의해서 작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718호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874호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남과 북이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핵무기 보유 금지 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선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명백히 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러한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갖출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이 이번에 실시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북한의 책임임을 밝힌다.

2.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함과 아울러,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가운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핵무기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체제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중단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

4.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 보호를 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委員長 劉承旼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다음 진성준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결의안 마지막 4항 끝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그 '주력'은 그냥 정부에다 맡기는데, 조금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확립하는 데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말로, '추가적인 조치'를 무엇 무엇을 밝히라는 그런 의미로 좀 넣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추가적인 조치를……

○김종태 위원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주어가 안 맞는데요. 문장이 '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어가……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확립하는 데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촉구한다 이거지요. '정부는…… 확립하는 데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안규백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 나온 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저는 결의사항 3항 후단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준수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 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준수'라는 표현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 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함을 전제로 그렇게 한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 4항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이라는 표현과 또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무리 없으시면 양당 간사님에게 자구 수정을 위임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에게……

○委員長 劉承旼 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또 김종태 위원님과 진성준 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이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문안 정리와 본회의 회부 등에 관련된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신상발언이십니까?

예, 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예산 문제를 언급했는데 아마 여기 간사님들께서 협의할 때 이 결의안에다가 예산의 추가 반영 문제를 넣기는 적절치 아니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한테 '않다' 하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 넣은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劉承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4항에 '정부는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확립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면 여기에는 북핵과 관련해서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하기 위한 필요한 긴급소요예산이 저는 간접적으로는 시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는 정부가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회는 예산의 심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국회라 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국회의 의견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려고 그래도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국방부와 우리

군이 정말 북핵 관련해서 긴급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국방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게 얼마가 되든 국회에 넘기면 그때 우리가 심의가 가능한 그런 일 처리 절차이기 때문에, 또한 이건 대북 규탄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을 양해해 주시고.

사실 이게 정부의 과도기입니다마는, 장관님 아까 송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긴급소요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것만을 위한 추경이든 아니면 다른 것을 포함한 추경이든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는 심의가 불가능한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안규백 위원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劉承旼 예, 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장관님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국방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뭔가 일관되게 꼼꼼한 정책과 기준이 필요한 것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예컨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1차 핵실험 때 8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2006년도 핵실험 당시에 북한 전력대비 긴급소요에서 예산 절차를 무시하고 8개 사업 중에서 단 2개만 지금 착수되고 나머지 5개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지하 파괴탄, EMP 방호탄, 조기경보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방사능 탐지기, 총 8개 사업 중 2개만 실현되고 나머지는 이월·불용된 것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2009년도로 기억되는데 당시 김장수 위원께서 정말 국회와 국방부가 국가예산을 꼼꼼히 살피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너무나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안 계셨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 내용과 과거, 현재를 아시면 국방예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이것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봐야 된다…… 지난번에도 2013년도 긴급소요가 제기돼 가지고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뭘 못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劉承旼 장관,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킬 체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여기에 각각 소요되는 예산을 다 받아야지 전력이 이루어지는데, 국방 전체의 예산을 놓고서 배분을 따지다 보면 꼭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금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 또는 사업을 놓고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3차까지 온 핵실험에 대해서 과거부터 소요 제기됐던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재스터디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원거리공격탄인 JASSM도 여전히 지금 이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사업 관리 과정에서의 변수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안규백 위원 당시에 김장수 의원께서도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한 국가재원의 분배에 대한 문제, 긴급소요전력에 대해서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2009년도에 국감에서 질책을 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에도 8개 긴급소요사업 중에서 천팔백칠십 몇 억인가를 했는데 아마 사백삼십 몇 억인가가 불용 처리돼 가지고 이월되고 그랬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상기시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니까.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의견과 또 안규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한미 연합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독자적으로는 탐지→식별→결심→타격하는 이 킬체인이 완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委員長 劉承旼 그리고 핵실험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은 장관님께서 이 문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긴급한 무슨 예산편성이 필요하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 국회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영근 위원 제가 조금만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국방부에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더 당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중기계획에서부터 중기계획 궤도보다 당겨야 되고, 예를 들면 800㎞ 미사일을 2017년부터 배치하라는 것을 2015년으로 당기겠다 이렇게 되면 긴급예산소요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촉구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

1. 北 3차 핵실험 관련 보고(계속)

(17시50분)

○委員長 劉承旼 지금 아직 세 분이나 1차 질의 남아 있으셔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위원 예, 김광진입니다.

방금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기에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피해가 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에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통보했다, 그리고 2차 핵실험 때도 사전통보가 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사전통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일까 좀 궁금한데요, 문서인지 아니면 소위 핫라인 이런 것들을 통한 것인지, 대사를 통한 것인지 아실 수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김광진 위원 장관님께서 지난 어제저녁에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광진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아시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다른 라인이든 장관님을 통한 라인이든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시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광진 위원 대통령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셔서 회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새벽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관님은 저녁에 보고를 받으셨고 통수권자는 새벽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괜찮은 문제일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보고하는 시간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몇 시간 정도 늦게 하셔도 큰 문제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진 위원 북한이 2차 핵실험 발표에 있어서도 미국에 통보하고 그 다음날 핵실험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의 갭 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장관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한 통보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보를 받고 장관님께서—어쨌든지 간에 지난 2차 때도 그 다음날 발사를 했으니까요—예상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오늘 오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광진 위원 오늘 오전일 가능성……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측 위성이 2개가 있지요, 북한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게 뭐 확실한 군사위성은 아닙니다마는……

○김광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일 확률, 그러니까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했고 2차 핵실험도 9시 45분, 그러니까 대부분 핵실험들을 오전에 감행하는 것으로 보면 3차도 오늘 오전일 확률이 높다 이렇

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리랑2호나 아리랑3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시간쯤 10시 인근에 북한 측 한반도 상공을 지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이 항우연 측에 혹은 국정원에 스케줄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제로 촬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한데 사실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실험 자체는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성으로 파악할 성격은 아닙니다.

○김광진 위원 위성으로 파악할 성격은 아니다…… 예.

2차 핵실험 때도 우리나라가 위성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됐었던 사항이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핵실험의 징후나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측하는, 그러니까 발생해 버린 상태에서는 지진으로 아는 것이겠지만 예측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위성으로 보는 것인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것이 조금……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가 위성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실험을 했다, 안 했다라는 판단은 지진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위성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진 위원 핵실험의 규모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1차 때 3.9, 2차 때 4.5 리히터 규모였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 리히터를 재는 단위가 MB방식도 있고 ML방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해 주신 1차와 2차 때의 방식은 MB방식과 ML방식 중에 어떤 것일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MB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광진 위원 오늘 최종적으로 4.9로 말씀하신 것은……

○국방부장관 김관진 MB방식입니다.

○김광진 위원 MB방식인가요? 그러면 MB방식과 ML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군은 MB방식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이 성급하게 ML방식을 통해서 5.1이나 뭐 이런 것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이나 아니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래서 그것은 지질자원연구소나 기상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우리가 통보를 받기 때문에 바로 MB방식인 4.9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국민께 알려 드린 겁니다.

○김광진 위원 이미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변동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것도 역시 추정치이기 때문에……

○김광진 위원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혼동스럽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우리가 핵실험 강도를 진도뿐만 아니라 공중음파나 방사성 기체분석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차 핵실험의 강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양측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보고에는 '2~6kt으로 추정한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보고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갖고요.

오늘 뉴스에 톱기사로 뜬 것 중의 하나가, 기사 제목이 어쨌든 방사성 기체를 통해서 분석하도록 되는데 분석은 미국을 통해서든 우리 측에서든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방사성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느냐, 이게 방사능이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국민들께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미량이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리고 국민들이 또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이것은 농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백두산의 폭발 위험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연구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핵실험 기지가 백두산과 근 100㎞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데 이 핵실험이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백두산 폭발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좀 있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기사에 대해서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크게 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를 연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연관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김광진 위원 그리고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핵실험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가지고 실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우려되거나 하는 정황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은 앞으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합참의장님 오셨을 때 어쨌든 4차, 5차 실험을 막으려면 돈줄을 막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여지기에는 이란이나 제3국을 통한 예산을 통해서 이 실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의장님께서는 이란으로부터 제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셨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하셨는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김정은이 이번 핵실험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확한 위치는 김정은이 어디 이동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한기호 위원 김정일이 이동할 때는 주로 열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디쯤 있다고 짐작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헬기로 다닙니까, 차량으로 다닙니까, 기차로 다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주로 열차도 사용을 하고 또 차량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 미사일 발사할 때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차량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탔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에도 어디에서 지휘했는지 모르시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자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험한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방부에, 지난번 합참의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도 국방부 조직표를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조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에 관련된 전문가는 저희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화학과가 지난번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화학장교가 왔던데, 그러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에 대한 핵공학박사, 핵물리학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측을 하고 강도를 측정하고 하는 이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받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도에 3.6 진도에, 이 당시에 TNT 톤수로 했을 때 0.8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25.4t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도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고. 2009년도는 4.5 진도에 5749t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금년도 이번에 실험한 것은 4.9일 경우에 2만 2162t입니다. 이게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7kt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고,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계산법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진도 규모에 따른 유력 판

단은 CTBT라는 환산표를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4.9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온 6~7kt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제가 회의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한번 나중에 보고받을 기회가 있으시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형 지속시간도 지난번 2차 때는 27초였는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2분 30초 동안 파형이 지속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추가적인 자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2분 30초이기 때문에 지난번 2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래서 이 문제는 지진파를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기관 여기서부터 자료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국방부는 지진파를 파악하고 하는 군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인프라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위원 인프라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인프라사운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인프라사운드는 지진파를 탐지하기보다는 갱도……

○委員長 劉承旼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일어서서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委員長 劉承旼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북한정보부장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프라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진파에서 잡는 지하 갱도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프라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연에서 인프라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센서가 전부 다 지자연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국방부에 탐지과가 있지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에 인프라사운드 한 세트가 있지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파형하고 나온 것 좀 받아볼 수 있으시지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그것은 오늘도 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그러나 그것은……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부 다 남들한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고 부정확하지만 국방부도 내부에 수단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그것으로는 방향을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2006년도, 2009년도도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봤을 때 얼마든지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로 맞춰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보셨습니까? 장관님께 보고드렸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거기 파형 나온 것 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그것은 다음에 받아서 분석할 때 사용할 겁니다.

○한기호 위원 쟤들이 핵실험하면 금방 나오는데 '가져와 봐' 그러면 금방 가져오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거리가 100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안 그러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합참의장한테 질의했을 때 맞춤형 억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관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억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달에 SCM에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작년도 SCM 시 이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무진들이 다 연구 검토하고 실무적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를 놓고서 보고 한다는 말이지 이것이 됐다, 안 됐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아직까지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작품이 아직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劉承旼 예,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중국이 지금 말하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제재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키인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을 저한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좀 강하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한기호 위원 결국은 중국을 믿을 게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력이 없든가, 믿을 데가 못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기호 위원 정치인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2번 갱도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2번 갱도가 지금 백두산 100㎞ 떨어진 데서도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3번 갱도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국방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겠는데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의장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제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핵실험을 했다, 지난번에 합참의장한테도 물었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지 않냐 하고 얘기한 것이 물론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겠다, 이것은 북한에 그만큼 타격을 줍니다.

또 국방부 차원에서는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연합사 해체 보류하겠다, 이것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국방기획 병력 감축하는 것 중단하겠다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카드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으신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핵실험 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실험했을 때 이런 것 한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는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를 하고, 한미 간에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전력을 시현하는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한기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 수정해야 된다 하고 김장수 내정자가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수정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직 신뢰 프로세스의 국방부 몫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직 과제로서 국방부에 시달이 안 됐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결국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전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진파 4.9로 봤을 적에 약 6~7㎏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만약에 이게 진짜 핵무기화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규모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이 도시지역에 떨어지느냐, 어디 다른 데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참고적으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10㎏ 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경,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합니다만 한 4~5㎞ 정도가 초토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북한의 조선통신사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보유국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해서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다종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에서도 소형화·경량화·다종화라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지금 이러한 표현들은 북한이 뭔가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플루토늄 가지고만 했느냐 아니면 농축우라늄이냐, 이 두 가지를 복합했느냐 이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서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핵실험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방사능을 포집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해야만이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혹시 지난 10일 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이것은 특수정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북한이 10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래도 굉장히 위협적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은 간혹 실험을 합니다. 처음 한 게 아니고 동종의 무기체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난 10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혹시 핵실험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른 나라 사례를 놓고 보면 세 차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추정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중국하고 미국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국가 차원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파악하기로는 중국과 미국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통보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외교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외교채널을 통해서 통보한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건너 가지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교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고 우리 정부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알려 주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도 아마 외교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려 줬을 것으로 압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께서는 이런 핵실험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통보를 받거나 혹은 파악하는 채널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 핵실험 한다, 했다 이런 보고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청와대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핵실험을 예를 들면 할 것이다, 내일 몇 시에 한다 이런 통보를 핵실험하기 전에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실험이 딱 벌어진 이후에는 핵실험이 있었다라는 통보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는지?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에 통보된 것은 준비가 완료되면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북한의 메시지를 제가 보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측으로부터 나온 통보사항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과거의 전례로 봐 가지고 오늘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대비를 했습니다.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것은 지질자원연구소와 기상청으로부터 동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이것 역시도 국가안보와 군사적인 사항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오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보는 받으신 거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오늘 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준비되면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지를 통보를 받은 겁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장관이 대비한 것은 오늘 할 것이라고 장관이 나름대로 판단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과거에도 하루 이후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청와대나 미국 측으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정보를 미국이나 청와대에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국하고 정보는 거의 매일 또는 실시간 단위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이 정보도 미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한 겁니다.

○김재윤 위원 결국 미국이 여러 가지 정보채널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 국방부가 적어도 북한 핵실험을 먼저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갈구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탐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가지고 군사적 대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전력 건설 및 배치·운용 이것 자체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비태세를 상향 조정했고 또 정보 감시태세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김재윤 위원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이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너무 북한을 몰아세운 것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방부장관과 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답변드려야 됩니까?

○김재윤 위원 예.

○국방부장관 김관진 1차 핵실험이 06년도입니다. 2차 핵실험이 09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하고 상관이 없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 보유를 추진해 왔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여기에 진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또 일본과 다 협력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빠지니까 통보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사소한 기록입니다마는 아까 나가사키 핵폭탄의 위력이 10kt이라고…… 그런데 알려진 것은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21~22kt, 히로시마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혹시 정정하실 수 있으면 정정……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정하겠습니다. 20kt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나가사키는 20kt 이상인 것으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질의를 하시겠는데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실 위원님은 제외하고 하실 위원님들은 그냥 다시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5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오늘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치과에 있었는데 치과 주치의가 저 치료하다가 옆으로 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뭡니까?" 하니까 '폭탄이 터졌대요.' "야, 치과도 핵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던 환자가 더 덧났대요. 그것을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다 모여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치료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국방위가 개회되어 가지고 장관님을 모시고 이런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의례적이고 그냥 한번 흘러가는 회의가 안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세를 보면 무덤덤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핵실험한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심각한 요소가 되는데도 주식이 요동치지 않는 것은 한국군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한미 공조체제가 잘 돼서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

○김종태 위원 정확하게 우리 혼자도 이만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미 연합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안보 위기에 대한 심각성 하에서 최대한 공조 노력을 할 것이고……

○김종태 위원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지만 만약에 한미 연합(공조)체제가 안 되더라도 4차·5차 핵실험을 하면 이 정도로 주식이 안정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유승민 위원장, 한기호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김관진 거기까지는 제가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종태 위원 저는 안 된다고 보고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장관께서 심각하게 이번 기회를, 정권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군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장비 면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축구장 몇 개 날릴 수 있는 우리 탄은 100% 소요 확보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종태 위원 그러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아직까지 판매 허락이 안 나 가지고, 국방부에서 제시한 금년도 560억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을 한미 간에 협의해 가지고 전력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

다고 하면 미군 전력이라도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협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백군기 위원님께서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통합당에서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차제에 좀 거북한 말씀입니다마는 북한 위협이 없다는 가정하게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권 환수가 계획된 것 아닙니까? 국방백서에 분명하게 북한 위협은 없어졌다는 가정, 도표하에 국방 개혁이 계획되었고 그다음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거기서 국방 개혁이라 함은 병력을 줄이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태 위원 당시 장관께서 국방 개혁을 수정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상부 지휘구조 말씀입니까?

○김종태 위원 상부 구조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국방 개혁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 개혁은 위협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현행 위협을 놓고서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들어오셔 가지고 북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그때 바꾸셨는데 그 전에 국방 개혁을 추진할 때는 북한 위협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전에……

○김종태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전에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지요, 북한 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러니까 북한 위협은 줄어들 것이고 잠재 위협은 커질 것이라는 가정을 했었지요.

○김종태 위원 북한 위협이 줄어들고 2020년도에 가서는 없어지는 것으로 국방백서 도표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신하에서 전시작전권도 2012년도에 환수하려다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국방 개혁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문제하고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토의하셔 가지고 현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지만 다음 정부에서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한국군 전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예산도 문제입니다마는 인력 혁신 의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장관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문제, 사기 문제 이러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무기와 사람이 함께 발전해야 되지 사람은 마음이 떠났는데 무기만 갖는다고 해서…… 장관 퇴임 후에 언제든 후회하시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어떤 복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하고 상의해서 발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까 말씀하신 국방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전력을 강화시키고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위협에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종태 위원 아니지요, 최초 출발할 때 북한 위협이 없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병력도 줄이고 부대 수도 줄이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요소는 제가 부임해 가지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병력 가용자원 자체가 줄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최대한 늘려 잡아 가지고 52만 2000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여야가 대선 때 18개월 운운하면서, 병력이 주는데 복무기간도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 국방부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시기상조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믿을 만한, 장관님께서 근무하시면서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한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아까 한기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장관께서는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것이 현 상황 위기관리와 다음에 또 제4차·제5차 핵실험할 때 그러한 과정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기호 다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민주통합당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준비되면 하겠다는 것을 의지 천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젯밤 10시에 통보를 받았으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주변국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핵실험을 막을 노력을 최후의 순간까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동안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핵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적 규약을 어기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어젯밤 이후로는 특별한 노력 경주는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김성환 장관은 이미 유엔 측에 가 있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조보근 합참 북한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플루토늄이냐 고농축우라늄이냐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부 국내 사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방사능 포진 중에서 제논이 많이 검출되면 플루토늄이고 크립톤이 많이 검출되면 HEU(고농축우라늄)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맞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그 비율 가지고 플루토늄 탄이냐 고농축우라늄 탄이냐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한기호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규백 위원 임 실장님, 자꾸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국방부에서 06년도에 양국 차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첫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회의 때부터 계속 처음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알면서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정확이 말씀하세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06년도에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계속 토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최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가요. 오늘도 얼마 전 SCM 장관회의 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06년도에 처음 나온 얘기인데……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06년도에 사용된 용어는 '확장 억제'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는 그러한 표현만 계속 있었고 06년도에 확장 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안규백 위원 '확장 억제 및 맞춤형 전쟁 억제' 이렇게 비슷한 용어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계속 토의만 됐던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액션이 있었던 것인지……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작년도에 SCM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안규백 위원 다음에 또 토의하기로 하고, 시간 때문에.

장관님,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지금 탐지, 그다음에 식별, 결심, 타격, 킬 체인(Kill Chain)에 의한 구상이 아직까지 우리가 협의가 안 되어 있지만 이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적이 우리를 향해서 피해를 줬을 때 이게 가능한데 이렇게 지하에서 지금 일어난 것을 사실상 식별, 탐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미사일 같은 것은 영공이나 영해상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서 이것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항상 전력을 운영한다면 가정을 우리가 설정합니다. 북한이 물론 실험할 때야 지하에서 실험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타격을 할 적에는 미사일에 탑재해 가지고 타격을 하는, 물론 그 이전에 항공기에 싣고 와서 투하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낱낱이 감시하고 식별해서 이것을 결심해 가지고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시에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를 투하한다 이럴 경우를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안규백 위원 당선인께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 요구에 앞서 가지고 북한이 프로세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탑승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미 신뢰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안규백 위원 프로세스에 탑재할 수 있는 내용물을 장관께서 요구할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북한의 성의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프로세스에 탑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먼저 현 박근혜 당선자 측에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이 말씀은, 아이젠하워가 6·25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서 우리나라 전쟁을 종식시켰고 닉슨도 악마의 제국, 악마의 축이라는 소련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인데, 전쟁 중에도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할게 아니라 신뢰 프로세스에 탑재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을 그동안 2년 2개월 재임하시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신정부에 장관께서 한번 건의하시기를 요구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 항상 남북 간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우리 위성이 사진을 못 찍었다는 데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그 업데이트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물어보고 지금……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북한정보부장입니다.

위성이 찍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항상 풍계리 위를 지나갈 수가 없고 그 궤도가 날짜마다 다 바뀝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고 이렇게 되면 영상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우리 위성은 그렇고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은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미국에 있는 위성은 구름이나 안개가 끼거나 밤에도 찍을 수 있는 SAR라는 레이더 영상을 획득하는 그런 위성이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것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오늘 장면도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협조가 됐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협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미 측에서 획득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대한 영상은 저희들이 지속 획득하고 있지만 핵실험 하는 것은 영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종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라늄이라고 아까 확인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 제가 다종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추정에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委員長 劉承旼 확인은 이제 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확인해 봐야 압니다.

○委員長 劉承旼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장관님, 소형화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유효성 있는 소형화로 하려면 지난번에 발사한 은하 3호 내지는 대포동 거기 수준의 헤드에 달아맬 경우에는 1000㎏, 그다음에 직경 90㎝, 대충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동급의 미사일은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남한을 쏘는데 대륙간탄도탄을 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가정도 추론이 가능

합니다.

○송영근 위원 그렇지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 B/C, 이게 사거리 한 500 정도, 이게 가장 큰 위협이 될 텐데 소형화가 됐을 때 스커드 B/C에 달 수 있는 그 소형화도 같은 1000㎏에 90㎝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욱 소형화되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더 작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영근 위원 더 작아야 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데는 훨씬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래서 아마 미군은 옛날에 했을 때는 155㎜까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북한의 소형화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러나 지금 내가 국방부에 묻고 싶은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비에 있어 가지고 국민을 확실하게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핵에 대한, 아까 인공위성도 그렇습니다마는 소형화되어 가지고 이동식 발사대에 태워 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거 우리가 100% 탐지한다는 보장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놓칠 가능성 많습니다.

그다음에 선제타격 한다 하더라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최소한 우리 땅에 적의 핵무기가 다 놓쳐서 감시를 못 해서 오더라도 날아오는 도중에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국민들에게 담보할 수 있는 안심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요격수단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우선적 조치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논리상 정확하십니다.

○송영근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스커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갖춘 요격수단이 대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PAC-2급 탄도미사일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대탄도미사일, 그런데 이것을 PAC-3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송영근 위원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중기계획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영근 위원 중기계획이면 2017년까지를 지금 의미하는데 그동안에는 역시 확장된 억제력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긴급소요로 해 가지고 요격수단만이라도 우선 갖추어 놔야 국민들이 저들이 우리가 다 놓쳐 가지고 쏘더라도 우리 땅에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다음, 이것과 관계없이……

자, 북한이 만날 서울 불바다, 불바다 하는데 수도권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몇 발 떨어졌다, 그러면 원점은 170㎜나 240㎜ 방사포가 될 것이고 그것을 쏘게 만든 것은 북한의 리더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거 날아왔을 때 김정은의 숙소나 사무실을 공격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적 지휘시설, 전쟁 지휘본부는 저희 타격목표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도 나왔지만 국정원에서 아리랑 2호, 3호, 2개를 돌리고 있지요? 우리 위성.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기여를 못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실험 탐지는 지자연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송영근 위원 그런데 사진으로 봐 가지고 입구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해상도가 그거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군사용 위성으로 자료를 교환 받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장비가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대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것은 전부 미군 자산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산,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인공위성, 군사위성을 띄울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202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2021년. 소요예산은 대개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해상도는 아마 30㎝급으로……

○송영근 위원 소요예산은?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산이요? 아마 예산 산출이 되어 있을 텐데 현재 자료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지금 태워 있지는 않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21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송영근 위원 이번에 돌아가셔 가지고, 여기 실무자 있으니까 긴급소요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다음에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북한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차 핵실험 어느 정부 때 했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2차 핵실험.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어느 정부 때 했는지 아시냐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2차 핵실험은 현 정부입니다.

○김재윤 위원 현 정부 때 했지요.

3차 핵실험, 지금 현재 어느 정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 정부지요.

○김재윤 위원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핵실험 한 거예요. 그 상황인식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 했다라는 통보를 미국 채널로부터 받았다라는 시간이 12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김관진 장관은 11일 오후 10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김관진 장관은 합참의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윤 위원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그게 11일 오후 10시에 받은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새벽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관이 대통령보다 먼저 받은 거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청와대는 참모계통으로 보고하는 것이고 저는 지휘계통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준비되면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 그 시간대에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어쨌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결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합참의장에게 먼저 통보해 줬고, 먼저 받은 것이고 청와대는 결국 늦게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나중에 확인하니까 참모계통으로 비슷한 시간에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미국, 중국, 러시아로부터 통보를 다 받은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는 혹시 박근혜 당선인 쪽에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것은 청와대가 한 것이군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지난 2월 10일 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알고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특수첩보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동해상으로 수 발

을 발사했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사안은 단거리기 때문에 북한이 자주 그런 실험을 해왔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는 어느 지역으로 몇 발을 발사했는지를 별도로 보고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궁금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밝힐 상황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첩보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도 역시 한미연합 자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김재윤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방부가 첩보 내지는 정보 내지는 자료를 입수하는 데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성시스템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핵실험 장면을 미국 측으로부터 사진을 받았습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지진파로 우리가 잡기 때문에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소로부터……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받았지만, 예를 들면 위성사진을 받은 적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위성사진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김재윤 위원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할 때 미국 측에서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님이 질문할 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핵실험 준비과정에서 그 일대 정황이 어떤가 하는 자료를 항상 미 측과 한국 측이 서로 교환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물론 지하에서 실험을 했지만 지상에서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상에서는 사진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떤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로 봐서는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미 간에 공조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그러면 청와대하고 백악관하고 공조가 좀 안 되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시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대통령과 장관이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을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참모진들은 비슷한 시간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윤 위원 참모진들은 비슷한 시간에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재윤 위원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후에도 국방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잘 마련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김형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우리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호, 아리랑 3호, 이번 핵실험 이전이나 이후에 핵실험 장소 일대에 대한 촬영은 실패했지요, 지금까지? 찍지 못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까 우리 참모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궤도가 시간대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지극히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위원 예, 사전에 핵실험 할 것이다라고 정보를 입수해서 바로 실험하는 그 순간 촬영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11시 47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1시간 33분 후에 아리랑위

성 3호가 바로 그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시간 33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의 사진을 찍지 못했다, 촬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실용위성의 운영체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입니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항우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북한정보부장님, 1시간 33분 후에 아리랑위성 3호가 풍계리 상공으로 지나간 것은 맞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1시간 33분 후에 지나가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의 현장을 사진 찍지 않았다? 실패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오늘 풍계리 지역이 구름이 끼어서 영상 획득을 못 하는 기상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사진 촬영의 실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명쾌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계속 묻고 있는데……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상공을 지나갔지만 구름이 끼어서 우리가 촬영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국방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오해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위성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상조건 때문에 촬영 못 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여러 분의 위원들이 묻는데도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가 그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김형태 위원 장관님, 제가 사전에 미리 알아 가지고 실험 직전 혹은 실험 순간을 왜 못 찍었냐 이 얘기가 아니라, 1시간 33분 후에 지나간 위성이 왜 그 중요한 현장을 찍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 실패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좌우간 그것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국방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련 기관에 그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운영 주체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이 오늘 실험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 그런데 중국에 사전 통보한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나중에 제가 외교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리고 '러시아에도 통보했다' 하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은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왜 우리 정부 측에는 통보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자기네들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 통보를……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리고 과거의 전례도, 지난 2006년도에도 미국과 중국에만 통보를 했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히터 규모로 오늘 실험 규모가 4.9라고 하는데, 4.9 같으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6~7kt의 위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확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추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지질자원연구소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제가 묻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7.9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김형태 위원 7.9까지?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형태 위원 그것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사키의 원폭 규모, 위력, 그리고 히로시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이 달라서 묻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까 제가 10kt으로 알고 있었는데, 20kt으로 정정했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정확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히로시마가 파괴력이 더 컸고 피해자가 더 많지만 나가사키의 위력보다는 약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안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그것 좀 정확히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질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답변할 때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점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는 장관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한 것 아닙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요, 우리 국군 조직표에 국군통수권자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정보와 첩보를 가지고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 그런데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합참의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10시경에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체계에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직접, 그렇게 밤늦은 시간도 아닌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외교안보수석과 전화를 통했습니다. 통하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외교안보수석이 왜 밤늦게 보고를 안 하고 새벽에 보고를 했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 내용 자체가, 제가 그 보고를 받은 즉시도 '아, 한다 한다 하더니 직접 통보를 한 것 보니까 좀 임박했다, 내일쯤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 그러니까 준비되면 핵실험 한다고 통보를 그렇게 받았으면, 그걸 또 장관께서는 '내일쯤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통보받은 어젯밤에 그냥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보고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통상의 경우에 외교안보수석이 해 왔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 이런 중요한 보고의 경우에는 장관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외교안보수석을 꼭 통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했다,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등등의 경우에는 제가 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 장관님, 몇 가지만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진에 대한 어떤 지진 규모라든지 폭발 규모에 대한 것은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 주무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거기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진의 규모와 진동의 규모와 폭발 규모는 거기서 나온 것을 국방부에서 인용할 수밖에 없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건 확실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북의 핵 갱도를 공개한 자료는 북한의 TV 자료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 뒤에 나올 파장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

는데, 하필이면 왜 북한의 TV에 공개된, 그것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인용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핵실험 할 때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서 국방부에서 사진의 모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과 북한 TV에 나왔던 것이 유사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TV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했다' 이건 꼭 아닙니다.

○백군기 위원 하여튼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금 소위 말한 '폭발력의 규모가 어디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는 없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질자원연구소의 보고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방사능 핵종을 채취할 때에는 소위 말하는 기류의 방향 또 바람, 여러 가지 기상을 고려할 텐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본 쪽에서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가깝고 유리할 것 같은데 일본과 어떤 공조, 협조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WC-135라는 정찰기, 이것을 일본지역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군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합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1·2차 실험 때에도 사실은 핵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채취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종류의 것일까 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채취하는 데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NSC에서 논의된 내용이 뭔지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까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북한에 제재를 하는 데 동참을 하겠다,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에서 특별히 거기다 발표 안 된 것 중에 넣은 것 없습니까? 공식적으로야 다 봤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자리에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지도체제를 몰락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밖에 발표를 안 합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경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시키셨는데요, 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주로 감시체제도 강화하면서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은 대기태세를 유지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장기간 동안 계속되면 야전에 피곤해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이것 자체는 추가적인 도발이나 핵실험이 없다면 피로도를 고려해 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WC-135기가 측정을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기류로 봐서는 일본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기류 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한기호 위원 일본하고도 사실은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일본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공식적으로 정보 교류를 한다면 우리 한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핵실험을 했는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비밀보호협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정서로 봐서는 불편한 요소가 있지만 군사적인 요소에서는 이런 핵실험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본하고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을 설득하더라도 이것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감합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은, 현재 북한의 군사적인 동향에 변화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북한 군사 동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핵실험과 관련돼서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핵실험 이후에 도발에 관련된 움직임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조 장군님, 뭐 변화 있는 게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조 장군님,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요즘 북한 정보, 핵실험 이후에 변화된 게 있는 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특별한 변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기호 위원 없습니까?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예.

○한기호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휴민트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 휴민트의 구축에 대한 건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필요하고.

또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북한의 고위급 군인, 한 대좌 정도라든가 장령, 중위 정도 수준이라든가 좀 공작 귀순을 시켜서 한번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좋은 생각이십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인공위성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통보하는 시간의 인터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하는 대로 정보를 못 갖는데 이런 인간적인 정보수집 수단도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요, 하시겠습니까?

진성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지금 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어젯밤 10시에 보고받으셨지요, 미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때 장관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관이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기존의 1차·2차 핵실험 당시에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에게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한 후로부터 핵실험을 실시하기까지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께서 '한 2, 30분 후에 핵실험이 진행되겠구나'라고 판단치 않고 다음날, '내일쯤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첫째는 '준비가 되면 하겠다' 하는 용어 자체가 좀 달랐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북한은 오전 시간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2일 9시경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관의 판단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에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지요, 핵실험 10분 전쯤에?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정확히 안 받았는데,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중국도 20분 전쯤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에게 또 미국과 일본에게 그 즉시로 통지를 해 줬어요.

당시에 중국이 통지한 내용은 '북한이 4kt 정도 되는 실험을 하겠다고 그런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럽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 후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에 4kt을 목표로 했는데 0.8kt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핵실험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제기되고 그랬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에 우리 군은 북한이 핵실험한 때로부터 28분 지나서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땠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에는 지질자원연구소에서 감지하자마자 바로 그 시간에 국방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11시 57분 50초에 지진파가 감지됐다라고 하는 건데 국방부가 기상청이나 지질자원연구소로부터 통지받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거의 동시에 받았습니다, 저희는.

○진성준 위원 동시였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12시 04분입니다.

○진성준 위원 12시 04분,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걸렸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진성준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차 핵실험 당시에는 왜 국방부가 지질자원연구소나 기상청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스터디를 덜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이 좀 제한됩니다.

○진성준 위원 군사분계선 인근에 북한의 지진파를 탐지하기 위한 군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시설은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군시설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군시설이 아니고 지자연에서 요로 요로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것은 지질자원연구소가 관장하는 시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전방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대답해 주세요.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질자원연구소가 관장하는 시설입니까, 우리 군이 관장하는 시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혹시 갱도 탐지를 위해서 탐지3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지진을 탐지하는 게 아니고 갱도를……

○진성준 위원 아니, 갱지 탐지용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진파 감지시설이……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장 조보근 그것은 지자연에서 설치해 놓은 장비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우리 군은 관장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군은 관장하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들으셨겠지만 북한이 만약 2번 서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 게 사실이라면 남쪽 갱도 추가적인 핵실험의 가능성도 남아있고 또 오늘 하루 종일 핵폭발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고요. 또 소형화·경량화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문이 남아있고요. 또 이게 고농축우라늄탄이냐 플루토늄탄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긴급소요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점도 국방부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보고할 준비가 되고 또 상황이 추가 핵실험이 있거나 하면 어차피 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추가적인 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고 합의를 해 주시면 국방부하고 연락해서 적절한 시점에 다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에서 장관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시는 대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고,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행위에도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고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광진	김재윤	김종태	김형태
백군기	손인춘	송영근	안규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석현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전문위원	구병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김관진
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기획조정관	김윤석
국제정책관	최홍기
정책기획차장	이종섭

합동참모본부

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작전부장	김용현
전략기획부장	김진형
전략정보부장	이친범
전력기획1처장	양병희